



흰그늘의길

옛 동지들과 함께 한 특별한 행사
흰그늘이 만든 길 위에서

● 김지하의 회고록 《흰그늘의길》 출간과 출간기념회 ●

시인이며 사상이 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의 이력을 보여준 김지하(62)는 친우 조동일 서울대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일찍이 이름을 드높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가 서른 살이 되던 1971년 신명에 취해 사흘 만에 써낸 정치세태풍자 시 <오적五賊>은 <사상계>에 발표되면서 유례없는 필화사건을 일으켰고 당국은 그를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자로 몰아 체포하고 사형을 언도한다. 그것은 김지하 개인에게 비극인 동시에 영예의 시작이었다. 당시 자유실천문인협회의(현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이 중심이 된 동료문인들은 김지하 석방 결의대회를 모의하다 옥고를 치렀고 일본 미국 유럽 등 나라 밖에서도 김 시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김지하는 박정희 정권이 종신집권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 시대의 질곡을 뚫는 장쾌한 풍자정신으로 30대의 나이에 한국문단의 상징적 존재로 우뚝 서버린 것이다. 그 김지하가 환갑이 넘어 3권짜리 회고록 《흰그늘의길》(학고재)을 출간했다. <동아일보>와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글을 묶은 이 회고록에는 김지하 시인의 유년체험부터 그의 문학과 사상의 씨앗이 어떻게 태동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지가 역동적이면서도 웅혼한 필치로 그려져 있다.

한편 《흰그늘의길》출간기념회가 지난 7월 11일 오후 여섯 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천도교 중앙대교당 1층에서 열렸다. 이날 출간기념회는 한국의 재야인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회합의 자리가 됐다.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고은 시인, 소설가 이호철, 조동일 서울대 교수 등 예전의 동지들은 서로 반갑게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는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현·김근태·이부영 의원,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시인 이근배, 김광규, 황지우, 이시영 씨, 소설가 박범신 씨 등 정치·사회·문화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김 시인의 회고록 출간을 경하했다.

이날 인사말에서 김지하는 "회고록을 쓴 게 내심 부끄럽다"면서 "사실은 내가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비겁한 사람에 속한다. 그럼 그리거나 시 쓰는 일 말고 이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으로 평화롭고 밖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솔하게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한 자신이 심취한 사상을 소개하면서 "과학과 미학, 예술과 수학이 만나는 역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역학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고록 속에서 천재로 묘사되는 조동일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축사를 통해 "회고록 출간이야말로 김지하 시인 최고의 걸작이라고 평할 만하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시인으로서는 시를 통해 세상과 대화를 할 것을 권한다"고 덕담을 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옥중에 있던 김지하 구명운동을 일본에서 주도했던 전 중앙공론 편집장 미야다 마리에 씨도 단상에 올라 "<오적>을 거듭해서 읽을수록 그의 문학의 힘에 감응되는 것을 느꼈다"면서 김지하 시인과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썩빛 개량한복을 입고 다리를 약간 저는 김지하의 모습 속에는 굴곡진 한국 현대사의 음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싶었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